

“크리스천 지성인”

■ 이종윤 원로목사

지성인과 지식인은 구별된다. 지성인은 지식을 갖춘 전문인 일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아는 지혜인이다.

지성인은 개인은 물론 민족사회의 안개를 헤치는 등불이 되어 인간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용을 한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인간의 교만한 지식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침을 찔러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의 비판작용이라 한다.

대학사회나 지식인에게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학문은 더 이상 학문으로서 가치를 상실케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판과 비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은 부정과 파괴를 위한 것이라면 비판은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는 명철(明哲)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작용은 지식활동에 속했다기보다 지성작용에 속한다.

비판을 통해 악과 거짓이 추방되고, 굽은 것이 곧게 펴지는 것이기에 학문연구에서 비판 작용이 결여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다. 지성의 비판 작용을 학문이 바탕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정당성에 있지 않고 진실성에 있다. 진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성사회는 그러므로 정당성보다 진실성을 강조하고, 지성인은 사실과 진리만을 주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이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낭만과 청춘이라는 특권 아래 숨겨진 감정적 흥분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찾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히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고 질문할 줄 아는 자유자다.

편견에 얽매인 개인이나 사회는 진리에 접근하기보다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는 악습에 빠지는 이는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반지성적, 파괴적 비난들은 학문 활동을 고체화시키고 진리를 찾는 일을 방해할 뿐이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진리 편에서야 하고 자신의 욕망도 자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와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변수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를 동시에 보되, 변수에서 상수를, 상수 속에서 변수를 읽는 양식(良識)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감성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성숙한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간상을 지성인이라 부른다. 냉철한 지성과 온화한 감성을 겸비하고, 이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보수와 혁신이 높은 차원에서 승화되어 성숙한 전인격적 차원의 능력을 갖되 미래에 대한 부단한 모험정신과 새로운 역사 창조 의지로 현재뿐 아니라 급격히 변천하는 지식과 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창조적 인물이 지성인이다.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천 지성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화해, 관용과 덕을 쌓되 미래 소망을 가진 인물이다. 학문의 지고성과 이데올로기적 확신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성을 지향하는 크리스천 지성인은 오늘의 문제 이해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제 또한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천 지성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6월 1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1 사명자대회가 시작되는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자율기도 신청을 각 다락방장님들께 해 주세요. 날짜와 요일을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일시에 계산 곳에서 기도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일 낮 12시에 3분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명자대회 기간에 1인 1사랑 실천운동을 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사랑을 나눌 일을 주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교회와 각 가정에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1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가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일어나라 함께 가자 ”

■ 요일 4:7-12

금년 사명자대회의 주제인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 2:10)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주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6). 그리고 주님은 생애 결정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용감하게 출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다가 뒤늦게 복음 전도의 일선으로 복귀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늦은 시기였지만, 그때가 바로 그의 결정의 삶을 향한 출발의 시기였습니다. 본문말씀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100세의 노사도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간곡한 말로 교훈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1. 에베소교회에 주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

에베소교회에 사랑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애절한 음성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교회를 괴롭힌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회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고 했습니다. 신앙의 절정, 최종의 경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은 이 사랑을 향해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2.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10절)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별명이 보이내게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즉 천동의 자식이란 의미입니다. 요한은 성격이 과격하고 혈기가 늘 넘쳤습니다. 그런 요한이 평생도록 신앙의 최고점을 향해 전진한 결과 사랑의 사도로 성숙해졌습니다. 말씀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단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기록합니다. 박해자들과 배교자들을 저주하며 살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셔서 그 사랑을 배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진정한 승리를 위한 출발

요한은 거룩한 승리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이 승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우리가 이런 승리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은 최고점의 신앙을 향해 모두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희생과 섬김으로 이웃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조정식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84: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8(시 13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31(37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일 4:7-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사명자대회발대식 말 은 이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59(40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8:3-4 인 도 자
 찬 송 251(137) 다 함 께
 기 도 지성철 집사
 성 경 행 7: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구원역사” ... 설 교 자
 * 찬 송 53(5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서윤1 권사 II부: 김정미 권사
 성 경 행 7:17-3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구원하시는 은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10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0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을 위한 교육 및 문답 실시
- 세례 교육 : 10월 10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10월 10일(주일) 오후 2시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58명	445명	2,103명	416명	2,247명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아담 이후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창조주와 대결하는 불행한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므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의 찌꺼기들로 인해 여전히 화평을 깨뜨리는 죄를 수없이 짓고 있다. 고로 불화와 분열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 과제다. 남북 문제, 종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대결, 세대 간의 차이, 가치관의 변이, 지방색, 파당주의 등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분만이 역사의 목적이 되시고 의미시며 중심이 되시고 화평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